

비철금속

구리 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

구리 가격 왜 올랐나?

2016년 톤당 약 4,700달러에서 횡보하던 구리 가격은 2016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로 톤당 6,000달러 수준으로 급등했음. 2017년 상반기 횡보세를 보이던 구리 가격은 하반기 들어 톤당 7,000달러 수준으로 다시 한번 급등함. 급등 배경은 대형광산들의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및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구리 스크랩 수입 규제 우려였음. 2017년 12월 이후 구리가격은 또다시 상승, 톤당 7,000달러를 넘어섬. 이는 달러 약세 및 중국의 대형 구리 제련소들의 동절기 가동 중단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 때문으로 판단됨.

구리 가격 더 오를까?

구리 가격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향후 구리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함.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봄.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 정책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봐야함. 즉, 중국의 구리 제련소 생산 규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고, 구리 스크랩 수입 규제 가능성도 높음. 뿐만 아니라 올해 주요 대형광산들의 노동계약 갱신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노조파업에 따른 공급차질 가능성도 여전히 높음. 장기적으로 봐도 광산 노후화에 따른 품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2011년 이후 장기간 구리가격 하락으로 신규 투자도 부족한 상황임.

수요는 견조한 상황으로 판단함. 글로벌 PMI는 2년래 최고치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구리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PMI도 경기확장 국면(50상회)을 지속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봐도 구리 수요는 견조할 가능성이 높음. 기존 수요 증가에 더불어 전기차 대중화에 따른 신수요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필요한 구리는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것보다 약 3~4배 많은 것으로 알려짐.

구리 가격 상승은 풍산에 긍정적

구리 가격 상승은 풍산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풍산의 연결기준 매출액에서 신동부문의 매출비중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 풍산의 신동제품의 판매가격은 구리 가격에 연동하며, 구리 가격 상승 시 메탈 게인 및 재고평가이익 발생으로 수익성은 상승함. 방산제품도 구리가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 시 제품가격 역시 상승함.

구리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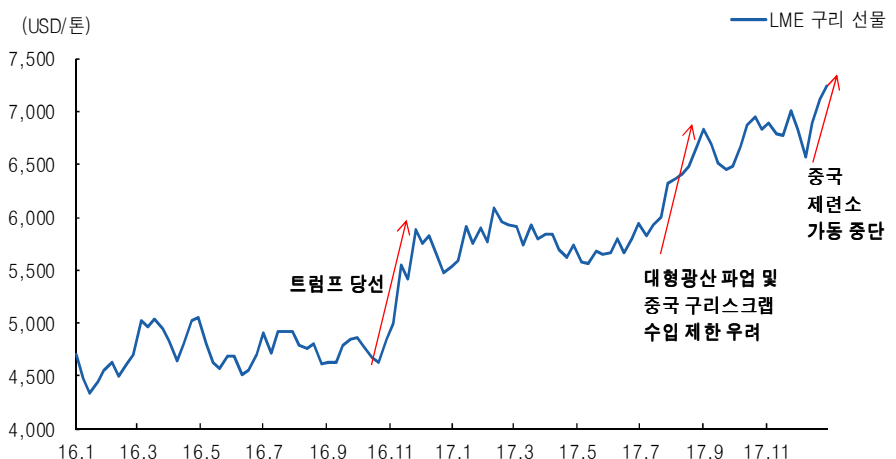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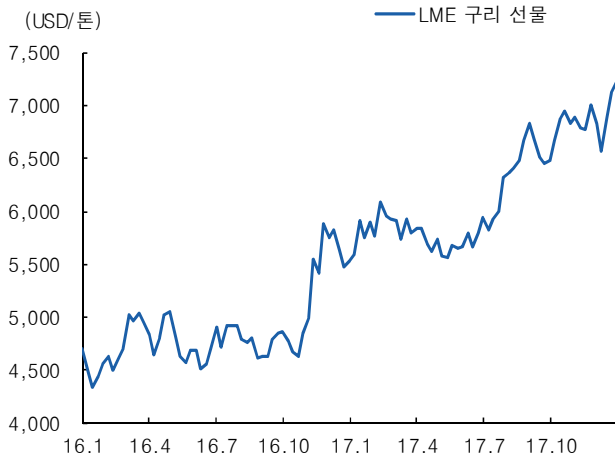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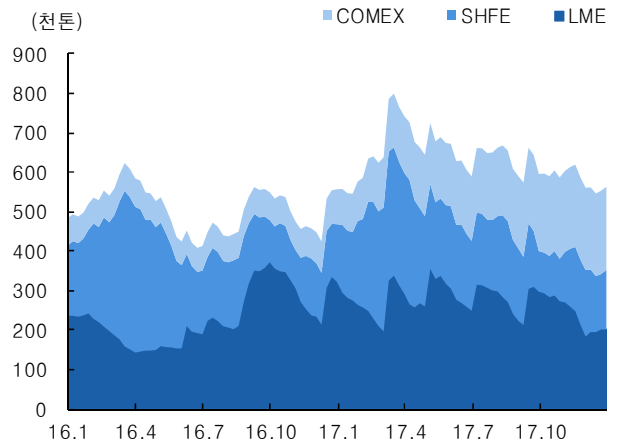


그림 1.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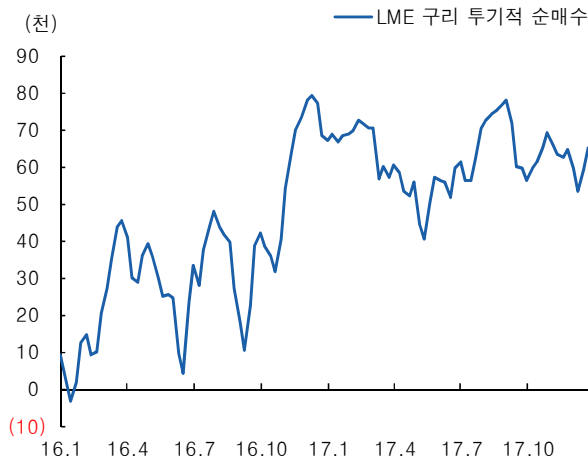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재고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3. 투기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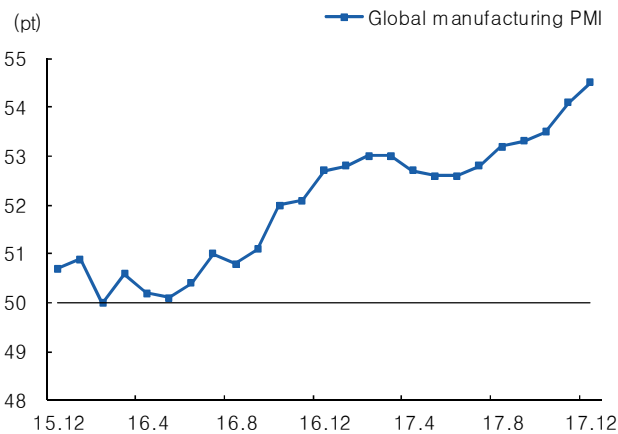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4.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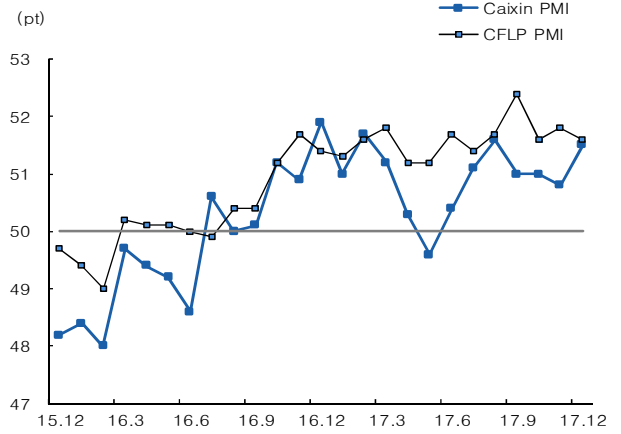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5. 글로벌 PMI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6. 중국 PMI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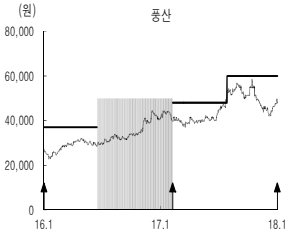
비철금속

구리 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풍산(103140)					2016.06.20	분석 대상 제외		-	-
2017.07.31	매수	60,000	-	-	2015.10.28	매수	37,000	-24.97	-13.51
2017.02.11	매수	48,000	-14.23	2.92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Trading Buy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주가하락이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약화

매수(▲), Trading Buy(■), 중립(●), 비중축소(◆),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비중축소(매도)
74.52%	12.50%	12.98%	0.00%

*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